

Stefan Nikolaev

STEFAN
NIKOLAEV

스테판 니콜라예프

Bulgaria
불가리아Installatin, Sculpture
설치, 조각

"공공미술이란 미술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형태이다. 근처를 지나가는 이들은 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작품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소피아 태생의 스테판 니콜라예프는 상징과 기호로 포화된 현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도전적인 작업을 구상하는 조각가다. 그는 공공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작업이야말로 인간의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여기며 일련의 설치 및 퍼포먼스 작업을 지속해왔다.

작가는 2002년 몬테네그로에서 개최된 '체티네 비엔날레(Cetinje Biennial)'를 시작으로 그간 발표했던 프로젝트를 돌아본다. 오프닝 행사와 함께 진행된 〈Under Construction〉은 다른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비엔날레를 방문한 관객들의 참여로 진행된 일종의 실험이었다. 전쟁을 거쳐 유고슬라비아 대신 몬테네그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체티네 지역은 마침 작품 제목과 같이 실제 공사와 재건 과정에 있던 터. 작가는 비엔날레 첫날 관람객에게 5,000여 개의 노란색 안전모를 나눠줌으로써 가상의 작업장 상황을 구현해냈다. 1년 뒤 2003년 스위스 쿠어(Chur)에서 선보인 작품

〈Monument to Monument〉는 불가리아 브라차(Vratsa)의 시인 흐리스토 보테프(Hristo Botev) 동상을 가져와 스위스의 영웅 베네딕트 폰타나(Benedikt Fontana) 동상 맞은편에 병치한 것이었다. 쿠어 시민들은 새로운 영웅 기념물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일상 속에 자리하던 동상이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사실에 불가리아의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이 소식이 불가리아 전국 신문에 보도되어 브라차 시장이 난감해졌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작가가 또 다른 대표작으로 손꼽는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불가리아관 전시작 〈What Goes Up Must Come Down〉은 "마케팅이나 상업 광고의 코드를 팝 미니멀리즘으로 변환시킨" 설치 작품이다.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로부터 영감을 받아 실제 불꽃이 나오는 4.5m 크기의 듀폰트(Dupont) 라이터의 형태로 오마주한 것. 동시대 상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현 세대에도 잔존하는 자유와 희생의 문제를 논했다. 그간 초기 계획부터 실제 진행까지의 과정을 술하게 거쳤던 작가는 오랜 시간 예술가의 포지션에 대해 재고해왔다. 특히 관객참여형 프로젝트 등 관람객이 작품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 예술가가

참여자들의 특성을 모두 인지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포지셔닝을 짚었다. 또한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제안은 합리적인지, 주변 건물과 환경과 어우러지는지, 인근 거주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이러한 질문과 함께 작가가 또 다시 발을 내딛을 목적지는 어디이며, 그 '공공의 풍경'은 무엇일까.

1. Photo credit: Kalin Serapionov 2. 〈What Goes Up Must Come Down〉 2007 Bronze, gas generated flame, 440×230×230cm, Edition of 3 'the 52th Biennale di Venezia' Bulgarian Pavilion, Palazzo Zorzi Vehbi Koc Foundation Collection, Istanbul, Turkey Courtesy Michel Rein, Paris/ Brussels | Sariev Contemporary, Plovdiv © photo Kalin Serapionov 3. 〈STREETLIGHT〉 2018 Aluminium, 46 led bulbs, glass, 400×250cm FIAC Projects 2018, Paris, Private collection Courtesy Michel Rein, Paris/ Brussels © Photo Marc Domage